

* 정답은 문항 옆에 붙어 있는 미주 번호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94) ④

(라)의 '길'은 '화자가 선택하지 않은 인생'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라)의 시적 화자는 '가지 않은 길'에 대해 미련이나 아쉬움을 느끼고 있지만 그 길이 이상향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 아니다.

295) ②

②는 시인의 외양을 묘사한 부분이다. 그러나 (가)를 통하여 외모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①③은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 괴로워했다.'에서 짐작할 수 있으며, ④는 시인의 불안과 고통을 형상화한 시어 '바람'에서 짐작할 수 있다. ⑤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를 통하여 시인이 타인을 사랑하는 성품임을 짐작할 수 있다.

296) ③

작품의 내재적 의미에만 주목하는 것을 찾으라고 했으므로 작품에 쓰인 시어나 운율, 표현법, 짜임 등 작품 요소들을 중심으로 감상하고 있는 것을 찾으면 된다. ①은 작품과 현실, ②는 작품과 작가와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으며, ④는 문학이 허구라는 전제를 부정하는 감상이며, ⑤는 독자의 태도에 주목하는 감상이다. 이렇게 볼 때, ①②④⑤는 작품 자체보다는 작품을 둘러싼 외적 조건, 즉 사회 현실이나 작가, 독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외재적 접근 방법에 속하는 것이다. ③은 작품의 표현 방식에 주목한 것으로 내재적 감상에 속한다.

297) ③

①에 드러나는 시적 화자의 정서는 님을 사별한 슬픔의 정서가 담겨 있다. ③에도 님을 사별한 슬픔, 즉 정한(情恨)의 정서가 드러난다.

298) ②

<보기>의 화자는 이제라도 한 길을 꾸준히 걸어가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화자가 가지 않은 다른 길에 미련을 두고 있는 (라)의 화자에게 들려 줄 말은 한 길을 꾸준히 가라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②는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보기>의 화자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299) ①

(가)는 사랑하는 임이 떠나려 하자 화자가 느끼는 이별의 정한을, (나)는 이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다)는 이별한 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는 사랑의 마음을, (라)는 곁에 없는 임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네 작품 모두 이별에 따른 시적 화자의 정서를 노래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300) ⑤

(가)는 임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상황에서 간절히 붙잡고 싶었으나 붙잡으면 돌아오지 않을까봐 선선히 떠나보내면서 임이 속히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라)는 이미 임과 이별하고 나서 소식조차 없는 임을 원망하는 내용이다. (가)에서 (라)로 상황이 변하고, (가)와 (라)의 화자가 동일하다고 할 때, 임이 서운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선히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임을 원망하는 태도가 드러난 ⑤가 가장 적절하다.

301) ②

①의 바로 앞 부분은 '붙잡아 두고 싶지만', ①의 바로 뒷부분은 '떠나보내기 싫은 임을 어쩔 수 없이 떠나 보내니 가자마자 곧 돌아오십시오'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때, ①을 전후하여 화자의 심리가 돌변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①에는 임을 붙잡지 못한 이유가 들어가야 임을 순순히 떠나보내겠다는 뒷부분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302) ①

<보기>에서 밑줄친 '테이프에 녹음한 노래'는 글쓴이의 마음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소재이다. (나)는 화자가 임에게 바치는 지순한 사랑을 뒷버들로 구상화시켜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임에게 바치는 순정만은 뒷버들처럼 항상 임의 곁에 있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에서 시적 화자가 자신이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소재는 '뒷버들'이다.

303) ①

(다)에서 '고개'는 바람과 구름은 물론이고 매들도 쉬어 넘는 고개로서, 임과 나(시적 화자)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물이다. (라)에서 ㉠ '은하수'도 견우와 직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서로 그 의미가 유사하다.

304) ④

글의 정보 추출 능력 및 시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답 해설

소설에서 '나'는 서술자이면서 등장인물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로 '나'는 사건에 개입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있다. 이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1인칭 주인공 시점, ② 시점의 변화가 보이지 않음, ③ 전지적 작가 시점, ⑤ 3인칭 관찰자 시점

305) ③

소설 속의 상황을 토대로 하나의 영상 장면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해설

소설에서 '나'는 관찰자로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 ①은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건우를 걱정하는 것이지, 집을 직접 방문해서 질책하는 내용은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다.

306) ①

글의 내용과 다른 설정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올바르게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갈발새 영감과 경찰의 마음과 의도를 파악한다.

정답 해설

갈발새 영감이 건우를 걱정해서 망설였다는 것은 추리할 수도 없으며 그를 밀친 것이 아니라 집어 던졌다.

307) ⑤

308) ②

인물의 견해를 일반적인 외적 상황과 연계시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해설

연론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의식의 표현은 ②이다.

오답 피하기

① 개인의 영웅심에 사로잡혔다는 갈발새 영감의 행동 ③ 자연 재해의 무서움 ④ 따뜻한 동포애 ⑤ 실정법을 어길 수도 있다는 사실 등은 모두 논점에서 벗어난 갈발새 영감의 행위라 할 수 있다.

309) ③

이 글의 중심 화제는 '정씨 여자'를 공주와 마찬가지로 부인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첩으로 할 것인가의 처리 문제이다.

310) ①

본문의 대화에 나타나 있듯이, 소문을 확인해 만약에 '용모와 재덕'이 자신보다 나으면 우려려 섬기고 그렇지 못하면 첩이나 종으로 삼아도 관계치 않는다고 하였다.

311) ②

태후는 처음에는 ‘정씨 여자’를 다른 사람과 혼인하도록 조서를 내리라고 황제에게 이야기를 하였으나 공주의 의견을 듣고 ‘정씨 여자’를 불러들일 것을 명하였다. 이는 공주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312) ①

태후는 공주가 여염집 여자와 같은 지위에 있을 수 없음을 내세워 ‘정씨 여자’를 첩으로 하자고 하고, 공주는 제왕과 천자의 사례를 들어 ‘용모와 재덕’을 기준으로 삼아 정식 부인으로 삼고자 한다. 이는 각자의 판단 기준, 입장에 따른 명분에 입각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313) ③

이 글은 상류 사회, 특히 궁중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격조 높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수사 기교가 사용된 것은 아니다.

314) ③

본문에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제시되어 있으나, 그 반대의 방향, 즉 민주주의의 성장이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315) ②

글쓴이는 첫째와 둘째 문단에서 정보화와 민주주의라는 화제를 제시한 후, 셋째와 넷째 문단에서 정보화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밝히는 두 가지 주장, 즉 낙관론과 비관론을 대비시켜 설명하고 있다. 다섯째 문단에서는 두 주장을 절충하면서 독자의 바람직한 행동 방식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316) ①

‘주권은 백성에게 있다’는 것이 교과서의 한 구절로 남아 있다는 것은, 이상은 그러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지 못함을 표현한 것이다. 그만큼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것으로, ‘아득히 멀다’라는 뜻의 ‘요원(遙遠)하다’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막연(漠然)하다 : 갈피를 잡을 수 없게 아득하다. 뚜렷하지 못하고 어렵듯하다. ③ 적막(寂寞)하다 : 고요하고 쓸쓸하다. ④ 소원(疏遠)하다 : 지내는 사이가 두텁지 아니하고 거리가 있어서 서먹서먹하다. ⑤ 냉엄(冷嚴)하다 : 태도나 행동이 냉정하고 엄하다.

317) ④

정보 통신 기술에 의한 통제 가능성이 예고하고 있는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의 사례는 본문의 넷째 문단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문단에 의하면, 비관론자들은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국민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는 예상을 펴고 있다. 이를 확대 적용하면 개인 정보 유출을 줄이려는 노력인 ④가 통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노력과 연결됨을 알 수 있다.

318) ②

포함적 정보와 개방적 정보 간의 관계를 견주어 본다면, ㉠은 모으거나 만들어 낼 수 있는 모든 정보 중에서 개방적 정보가 아닌 정보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인 ‘개방적 정보’와는 달리, ‘배타적 정보’는 ‘한 사람의 정보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사용에 의해서 손해를 받거나 방해받는 정보’를 뜻한다. 이 정보는 대체로 정치적 성격 혹은 독점적 성격을 띠는 정보들로서, 권력을 증대시키거나 빈부의 격차를 증가시키는 정보이다. ‘배타적 정보’의 이러한 의미는 ‘개방적 정보’와의 차이가 부각되는 문맥을 통해 추리할 수 있다.

319) ⑤

제시문은 신화의 개념, 신화에서의 상상력의 의미와 효용, 신화의 공통적 속성과 민족적 특성 등을 다루고 있다. (다)에서 신화가 과거에는 우주 만물에 대한 이해의 매개체로, 현재는 문학적 상상력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으므로 ⑤는 본문의 내용을 반대로 이해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은 (나)의 뒷부분에서, ②는 (나)의 앞부분에서, ③은 (라)에서, ④는 (마)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320) ⑤

(마)를 요약하면, '신화에는 인류 보편의 속성과 개별 민족 특유의 속성이 함께 나타난다.'이다. 다시 말해 신화가 현재 모습을 갖게 된 원인을 분석하는 문단이 아니다.

[오답 피하기]

- ① '화수분 단지', '혼자 도는 맷돌' 이야기가 인간의 욕망을 반영하듯이 신화는 사람들의 원망(願望)을 반영한다.
- ③ 신화의 상상력은 창조적 상상력, 생산적 창조력으로 이어진다.
- ④ '환상성'은 황당무계한 것이 아니라 창조력이다.

321) ③

<보기>는 '인간이 발명한 문명의 이기(利器), 즉 비행기나 배 등은 결국 인간의 신화적 사유의 결과물이다.'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기>가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은 ㉔이다. 왜냐 하면 ㉔의 앞부분에서 '문명의 이기(利器)의 근본은 신화적 상상력'이라 했고, <보기>는 그 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322) ①

투사(投射)의 사전적 의미가 '던지거나 쏘다.'이지만 여기서는 '반영되다', '담겨 있다'의 문맥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③ 규명(糾明): 자세히 캐고 따져 사실을 밝힘.

323) ④

<보기>에서 이규보는 동명왕의 이야기는 성(聖)과 신(神)의 기록이기 때문에 후손에게 우리나라가 성인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동명왕편』을 쓴다고 했다. 그러므로 찬란한 민족 문화와 정체성을 언급하고 있는 (라)와 가장 관련이 깊다.